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공식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가지는 효과

장덕희 * · 이경은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식적 지지가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62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공식적지지 경험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담서비스를 받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정도가 낮았고, 상담서비스와 우리말 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다소 불안정도도 낮았으며, 취미여가서비스, 경제적서비스, 각종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부적응정도도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응에 있어서는 우리말서비스, 결연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결과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공식적지지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결혼이민여성, 정신건강, 불안, 문화적응, 공식적 지지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 교신저자. keung@knu.ac.kr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2010): pp.67-97

© 201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우리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국가 간 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 중 국제결혼은 1995년 1만 3천 건에서 2005년에는 4만3천 건으로 10년 만에 220%로 증가되어 결혼이민여성과 자녀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는 향후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증가는 특이하게도 혼인시장의 성비불균형에 기인하다 보니, 도시보다는 농촌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도 한두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하여 많은 인종과 문화가 우리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다인종 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 통합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의식과 관행이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단일혈통 민족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배척현상이 있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 명백하다. 사실상 다양한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단순히 동화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 간 통합인 것이고 거시관점에서 보면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은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우리나라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이들이 우리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생활한다면 사회에 대해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가지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66,659명의 결혼이민여성들 중 경북지역에는 1,489명의 결혼이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데 경북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북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와 이들의 자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져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사소통 능력부족, 문화격차, 경제적 문제와 우리사회 전반의 인종 간의 차별 및 편견 등에 따른 문제로 우리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더욱이 결혼이민자들의 이혼도 증가추세에 있다(보건복지부, 2005a).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총 4,278건으로 전년도의 3,400건에 비해 25.8%의 증가를 나타냈다. 게다가 많은 수의 결혼이민여성들이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가정폭력에의 노출 등 심각한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언어적 폭력(31%), 신체적 폭력(26.5%), 성적학대(23.1%), 위협(18.4%) 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보건복지부, 2005a)하여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지는 문제는 비단 부부문제 뿐 아니라 자녀양육 문제 혹은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 등 가족발달주기에 따라 여러 가족문제를 가질 위험이 높다. 특히 이들의 자녀는 외국인 엄마,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적응이 어렵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중고교에 진학할 경우 심리적 위축과 자신감 상실 등은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청소년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일선, 2008).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결혼이민여성 중 많은 수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농촌이 가지는 문제까지 가지고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젊은 이들의 이농 현상이 두드러져 더욱 피폐해지고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위한 국가의 노력도 많은 부분 이루어졌으나 가시화되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보다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결혼을 통해 홀로 이민 온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타문화권의 배우자 및 집안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 갈등과 이에 따른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김도희, 2008), 또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 상실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Berry, 1997),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하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결과라기보다는 적응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자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정진경·양계민, 2004)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이들의 정착을 위하여 농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을 위시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많은 부분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와 합리적인 사업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

구하고 우리사회의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정책과 행정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관에 의존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대표적인 공식적 자원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자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연결과 이의 실천적 연결이 가능케 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는 공식 자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고 그나마 선행연구들은 주로 비공식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과 이웃, 대학생과의 관계를 통한 결연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어 고무적이거나 이 또한 비공식 자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공식적 자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기현, 2008; 김도희, 2009; 장덕희, 2007). 특히 Fontaine(1986)은 공식적 지지와 이주민의 적응스트레스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공식적 지지가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농촌의 특성을 포괄하고자 도농복합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공식적 지지가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우리사회로의 통합을 돕는 공식적 지지 자원 개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

결혼이민여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 무기력감, 불안 등(보건복지부, 2005b; 김오남, 2007)을 들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대한 연구 가운데 양옥경과 김연수(2007)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수준을 조사해 본 결과 연구대상자인 결혼이민여성의 26.9%가 우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들이 정신건강상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제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첫 관점은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 한 결혼이민여성들이 타문화권 속의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역할 갈등에 따른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김도희, 2008),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은 적응과정에 있어 불안이나 우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나 소외감,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이소래, 1997: 214-215), 이로 인해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에 계속 노출될 경우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Alderete, 2000)되었다.

또 다른 관점은 결혼이민여성과 같이 타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문화적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때 임상적으로 우울, 불안이 나타나고, 이는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ry, 1997).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결과라기 보다는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자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로서 보아야 한다(정진경·양계민, 2004)는 입장이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부적응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은 우울과 불안, 사회적 부적응으로 볼 수 있다.

2)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란 국제결혼, 이민, 세계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소수민족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적응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심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수준의 사회변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Berry, 1987, 1997). 문화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범주는 신체적,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유형이다(Berry et al., 1988).

첫째, 신체적 변화는 낯선 거주 지역, 낯선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기후를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생물학적 변화는 낯선 음식의 접촉, 이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넷째, 문

화적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언어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변화는 태도, 가치, 신념, 그리고 정신건강의 변화를 의미한다.

Davis(1978)는 동화(assimilation)를 소수집단인 이민자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현지 사회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소수민족을 흡수하려는 지배적인 다수민족의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지배집단에 의해 소수집단이 수용 받는다는 개념으로 통하여(Teske & Nelson, 1974), 결국 소수집단이 다수집단과 구별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소수민족의 경우 동화보다는 문화접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Hurh과 Kim(1984)은 문화접변이란 이민 온 소수가 다수문화 속에 생활해 가면서 다수집단의 규준과 가치를 수용하고 또, 이민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준거집단의 문화를 수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윤복남, 1997 재인용). 즉 이들 스스로 문화적 가치관들을 수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Camilleri와 Malewska-peyre(1997)의 연구에서도 본인의 가치관단에 따라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여 행동을 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에 사는 북미 흑인 연구에서 아이들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택하고 또래와 어울릴 때에는 현대적인 방식을 택하며, 직장인들의 경우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동료들과 어울릴 때는 와인을 마시지만 집에서는 마시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정진경 외, 2004 재인용). 즉 본인이 지닌 문화적 가치는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적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적 정체성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Berry(1984)는 문화적응 과정이 모든 이주자들에게 한결같이 균일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것은 자문화와 타문화의 성격과 개인의 열의와 희망에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문화적응이 개인에게 있어서 삶을

유지해가는 힘을 소멸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 삶의 기회 확장으로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 것이다(Berry & Kim, 1987). 그러나 한민주류인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다면, 이민자들은 모두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에 소수집단이 순응해야만 하는 주된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문화적응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문화적응 유형, 문화민감성과 언어, 문화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응의 수준을 잘 측정할 수 있는 하위영역으로 언어사용/선호도, 사회적 동화, 평소생활습관, 문화적 전통성, 문화정체성과 자부심의 다섯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의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려는 척도로써 현재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적합한 도구라고 판단된다.

3) 공식적 지지와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는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용어로 1970년대 Kaplan(1974)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매개변인으로 생물-유전학적 속성, 개인의 성격 특징,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환경 등이 다루어졌다. 이중 사회-심리적 환경의 주된 변인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다루어졌는데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Holahan & Moos, 1981; Kaplan et al., 1983; Schaefer et al., 1981). 사회적 지지는 기존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적응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이소래, 1997; Cobb, 1979; Vaux, 1981). 즉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상

황이 주는 충격을 감소시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과는 무관하게 대인관계의 질적, 또는 양적 증감 그 자체가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지지는 원천에 따라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비공식적 지지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 받는 도움이나 원조를 의미한다. 공식적 지지란 지역사회내의 단체인 기관, 복지서비스체계로부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로부터의 분리감과 차별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공식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사용능력의 어려움, 이주에 대한 후회, 지역사회로부터 거부되어 고립되어 있는 상태 등이 결혼이민여성의 정신적 어려움 즉, 우울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Abbott et al., 1999; 이소래, 1997).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공식적 지지는 결혼이민여성이 가지는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반면,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적 서비스, 경찰 지원 및 법적 지원, 쉼터의 거주, 주간보호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큰 것일 때 맞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대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장덕희, 2010; Reinke, 1997)고 한다. 이와 같이 공식적 지지는 취약계층의 여성과 자녀를 돕는 요인으로 나타나 다양한 공적 자원에 의한 지지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원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공식적 지지와 문화적응

문화적응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개인의 성격, 사회적 지지, 대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소유여부, 문화적응의 방식 및 인구학적 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공식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즉 이민자들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도움이 중요하다고 스트레스-대처 이론은 설명한다(Cohen, 1979). 이승중(199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재한 유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재한 유학생들 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하나(2006)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실질적인 자원이 오고가는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Fontaine(1986)은 적응 스트레스와 사회가 제공하는 공식적 지지와는 역 상관관계가 크다고 보았다. 위의 선행연구를 미루어 보면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Berry 등이(1998) 밝히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도 공식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건복지부(2005b)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자원 동원력은 낮은 편에 속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식적 지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라는 사실은 문화적응관련 연구에서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이미 그 관계성을 검증 받아 왔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나 불행하게도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자원 동원력은 취약해 자원 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공적 자원에 의한 공식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공식적 지지가 이들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문화적응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현재 경북 10개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경산, 경주,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예천, 포항)에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원센터의 이용자 현황에 기초하여 할당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9년 2월 18일부터 2월 29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다. 센터별로 80부씩 총 800부를 배포하여 64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최종분석에는 답변이 부실한 16부를 제외한 총 624부를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신건강, 문화적응, 공식적 지지로 구분되며,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지역, 출신국가, 연령, 가정경제, 자녀수로 구성하였다.

(1) 정신건강

정신건강척도는 비정신의료전문가를 위한 정신건강척도로 개발된 GHQ를 이용하였다. 이는 신선인(2001)이 지역사회 내 대인서비스 전문가가 정신질환의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 KGHQ-20을 사용하였고 하위변인으로는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을 포함하였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의 범주는 0-1-2-3의 방식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0.75였다.

(2) 문화적응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을 가장 잘 측정해줄 수 있는 척도는 하위변인들 중 언어사용, 사회적 동화, 평소생활습관, 문화적 전통성, 문화정체성과 자부심의 다섯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안계를 위해 개발한 SL-ASIA(Suinn-lew Asian Self-Identify Acculturation Scale)가 적절하다. 이 척도는 Suinn, Ahuna & Khoo (1992)가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의 문화적응수준을 측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더욱이 본 척도는 선행연구(김도희, 2008)에서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본 척도는 원래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대상에 적합한 문항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17문항으로 정리되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낮으면 문화적응 정도가 낮고, 점수가 높으면 문화적응이 높다. SL-ASIA척도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0.88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0.86로 나타났다.

(3) 공식적 지지

공식적 지지는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와 경험정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덕희(2001)의 연구를 기초로 결혼이민여성들의 공식적 지지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시·군청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별로 분석 및 분류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리말서비스, 결혼사업, 직업교육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 가정방문서비스, 경제적 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각종 캠프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8개 하위영역의 개방식의 반구조화된 설문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명과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여 참여 경험정도를 조사하였다.

3) 연구절차와 자료처리

설문지의 질문내용과 용어 및 개념 등은 4명의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한지 5년 이상 되고 현재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 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였다. 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어 5개 언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출신국의 결혼이민여성은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조사자이거나, 모국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모국어 멘토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였다. 문화적 내용에 대한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문항내용의 이해도와 연구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한 이후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한국의 결혼이민여성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문항을 수정 혹은 제외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조사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직원과 방문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내용에 대한 숙지 및 주의사항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들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설명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접 설문지에 답을 하도록 하였다.

상기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공식적 지지 경험에 관한 기술통계와 공식적 지지경험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자 공식적 지지경험 유무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검증(t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지역별로 안동 121명(19.4%), 상주 107명(17.1%), 영주 85명(13.6%), 경산 62명(9.9%), 예천 58명(9.3%), 포항 49명(7.9%), 경주 46명(7.4%), 구미 44명(7.1%), 문경 35명(5.6%), 김천 17명(2.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1세-25세가 279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6세-30세가 179명(28.7%), 31세-35세 72명(11.5%), 36세-40세가 42명(6.7%), 41세 이상이 33명(5.3%), 20세 이하가 19명(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징(n =624)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상주	107	17.1	출신국가	필리핀	44	7.1
	안동	121	19.4		베트남	381	61.1
	예천	58	9.3		중국	117	18.8
	영주	85	13.6		일본	45	7.2
	경산	62	9.9		기타	37	6.0
	김천	17	2.7	경제수준	100만원 미만	359	57.5
	구미	44	7.1		100만원-199만원	229	36.7
	포항	49	7.9		200만원-299만원	27	4.3
	경주	46	7.4		300만원-399만원	8	1.3
	문경	35	5.6		400만원 이상	1	.2
연령	20세이하	19	3.0	자녀수	0명	96	15.4
	21-25세	279	44.7		1명	352	56.4
	26-30세	179	28.7		2명	126	20.2
	31-35세	72	11.5		3명	40	6.4
	36-40세	42	6.7		4명	8	1.3
	41세 이상	33	5.3		5명	2	.3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381명(61.1%)로 가장 많았고, 중국 117명(18.8%), 일본 45명(7.2%), 필리핀 44명(7.1%), 기타 37명(6.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국가에는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수준은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9명(57.5%), 100만원-199만원이 229명(36.7%), 200만원-299만원인 경우가 27명(4.3%), 300만원-399만원이 8명(1.3%), 400만원 이상이 1명(0.2%)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96명(15.4%), 1명인 경우가 352명

(56.4%), 2명은 126명(20.2%), 3명은 40명(6.4%), 4명은 8명(1.3%), 5명은 2명(0.3%) 이었다.

2) 공식적 지지 서비스 이용 경험

결혼이민여성의 공식적 지지 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우리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70.7%, 취미여가서비스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0%,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은 21.2%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우리말서비스와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각종 캠프 프로그램(18.1%)이나, 직업교육 참여 경험(17.5%), 경제적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16.3%), 그리고 결연사업에 참여한 경험(15.1%)은 결혼이민여성 10명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공식적 지지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한글교육과 육아에 따른 가사지원을 포함한 가정방문서비스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이 밖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은 매우 드문 것을 알 수 있어, 다양한 공식적 지지 자원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공식적 지지 서비스 이용 경험

구분	참여경험	N(%)	순위
우리말서비스	유	535(85.7)	1
	무	89(14.3)	
결연사업	유	94(15.1)	8
	무	530(84.9)	
직업교육서비스	유	47(17.5)	6
	무	577(92.5)	
취미여가서비스	유	190(30.0)	3
	무	434(70.0)	
가정방문(아동양육도우미, 가사 지원, 가족지원 등 포함)서비스	유	441(70.7)	2
	무	183(29.3)	
경제적지원서비스	유	102(16.3)	7
	무	522(83.7)	
상담서비스	유	132(21.2)	4
	무	492(78.8)	
각종캠프참여	유	113(18.1)	5
	무	511(81.9)	
계		624(100.0)	

3) 공식적 지지 서비스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 및 문화적응의 차이

결혼이민여성들을 공식적 지지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우울, 불안, 사회적 부적응 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말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울과 문화적응에 있어서는 우리말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말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우울정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반면에 문화적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결연사업의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연사업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 집단의 문화적응이 그렇지 않은 결혼이민여성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p < .05$). 그러나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직업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의 차이에서는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취미여가서비스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결혼이민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정도가 낮고($p < .05$), 문화적응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5$).

다섯째, 가정방문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 문화적응 정도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경제적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사회적 부적응에 있어서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결혼이민여성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부적응 정도가 낮았다($p < .05$).

일곱째,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불안($p < .05$)과 우울($p < .01$)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종 캠프관련 서비스 참여 경험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결혼이민여성보다 사회적 부적응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표 3〉 공식적 지지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의 차이

내용	구분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우리말 서비스 이용 경험	불안	유	3.95	1.47	-1.21
		무	4.14	1.63	
	우울	유	3.54	1.37	-.64*
		무	3.63	1.53	
	사회적 부적응	유	11.66	3.14	-1.67
		무	12.22	3.51	
	문화 적응	유	61.11	8.84	2.14*
		무	59.09	9.80	
결연사업 이용 경험	불안	유	4.11	1.57	-.33
		무	4.17	1.55	
	우울	유	3.52	1.30	-1.11
		무	3.70	1.46	
	사회적 부적응	유	11.77	2.91	.06
		무	11.75	3.31	
	문화 적응	유	59.84	7.54	1.19*
		무	58.60	9.35	
직업교육 이용 경험	불안	유	4.53	1.54	1.59
		무	4.14	1.56	
	우울	유	3.87	1.58	.95
		무	3.66	1.42	
	사회적 부적응	유	12.68	2.61	1.98
		무	11.68	3.30	
	문화 적응	유	58.70	8.38	-.73
		무	59.72	9.22	
취미여가 서비스 이용 경험	불안	유	4.20	1.58	.08
		무	4.19	1.55	
	우울	유	3.71	1.54	.33
		무	3.66	1.40	
	사회적 부적응	유	11.64	2.89	-.44*
		무	11.77	3.40	
	문화 적응	유	59.93	8.26	.46*
		무	59.55	9.45	

〈표 3〉 계속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경험	불안	유	4.21	1.59	.59
		무	4.13	1.46	
	우울	유	3.68	1.41	-.03
		무	3.69	1.47	
	사회적 부적응	유	11.56	3.25	-.55
		무	11.71	3.06	
문화 적응	유	59.73	8.79	-.43	
	무	60.07	9.17		
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	불안	유	4.04	1.56	-.66
		무	4.16	1.55	
	우울	유	3.78	1.36	.78
		무	3.65	1.46	
	사회적 부적응	유	11.29	3.23	-2.07*
		무	12.53	3.28	
문화 적응	유	59.16	8.11	-.70	
	무	59.88	9.33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	불안	유	4.07	1.54	2.11*
		무	4.40	1.59	
	우울	유	3.56	1.42	2.73**
		무	3.96	1.45	
	사회적 부적응	유	11.65	2.79	-.03
		무	11.67	3.39	
문화 적응	유	58.43	8.91	-1.8	
	무	60.11	9.10		
캠프 서비스 이용 경험	불안	유	4.13	1.45	-.23
		무	4.17	1.57	
	우울	유	3.60	1.44	-.76
		무	3.72	1.43	
	사회적 부적응	유	11.53	2.67	-.85*
		무	11.83	3.36	
문화 적응	유	60.03	8.00	.46	
	무	59.58	9.30		

* $p < .05$, ** $p < .01$

이러한 결과로 보아 직업교육서비스와 가정방문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공식적 자원에 의한 각종 서비스 이용 경험이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에서는 상담서비스가, 불안에서는 우리말서비스와 상담서비스가, 사회적 부적응에는 취미여가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캠프 참여 경험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에는 우리말서비스, 결혼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공식적 지지 경험 정도와 공식적 지지가 정신건강 및 문화적응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의 함의를 기초로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공식적 지지 자원 개발 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상북도의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624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73.4%가 20대이고, 이들의 과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고(61.1%) 월수입은 과반 정도(57.5%)가 10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은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한 공식적 지지는 우리말서비스 이용 경험이 85.7%로 가장 높은 응답의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은 가정방문서비스(70.7%), 취미여가서비스(30.0%), 상담서비스(21.2%), 캠프관련서비스(18.1%) 직업교육(17.5%), 경제적 지원서비스(16.3%), 결혼사업(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공식적

지지 서비스의 대부분이 한글교육과 가정방문서비스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기의 공식적 지지 경험이 우울, 불안, 사회적 부적응 등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울에 있어서는 상담서비스가, 불안에는 우리말서비스와 상담서비스가, 사회적 부적응에는 취미여가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각종 캠프 참여 경험 정도에 따른 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상담서비스를 받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정도가 낮고, 상담서비스와 우리말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결혼이민여성들에 비해 불안 정도가 낮고, 취미여가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각종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적 부적응 정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넷째, 문화적응에 있어서는 우리말서비스, 결연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문화적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공식적 자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불안과 우울, 사회적 부적응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 지지가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지지 서비스의 대부분이 한국어교육서비스와 아동양육 돌보미 중심의 가정, 가사지원 서비스에 편중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기현(2008)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그 이용률이 낮다는 연구결

과와 일맥상통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서비스나 직업교육서비스, 결혼서비스, 캠프 등의 서비스는 기회의 제공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울이나 불안을 증재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나 사회적 부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결혼사업, 각종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은과 박창제(200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90%이상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서비스와 아동양육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고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을 지원하는 제공기관 사업의 취약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에 치중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전문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을 돕는 지원기관의 전문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우울, 불안, 사회적 부적응을 비롯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직접 사정하고 치료하고, 나아가 관련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담당할 전문가의 배치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 기관을 통한 우리말교육과 결혼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는 문화적응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적응을 원조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사실상 문화적응은 단순히 언어교육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결혼이민여성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본인의 조국 문화를 융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문화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김오남(2007)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이 결혼이민여

성의 정신건강 요소 가운데 우울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보고해 결혼이민 여성의 문화적응은 이들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우리말교육, 결연사업, 상담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 캠프 등의 다양한 공적 자원에 의한 프로그램은 문화적응과 정신건강을 원조할 수 있어 이러한 다양한 공식적 지지 자원 확충이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성 도모와 문화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농촌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문화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농촌의 열악성을 반영하여 기관설립과 내실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공식적 지지 경험으로 한정하여 공적 서비스의 참여 경험 유무에 국한하여 정신건강과 문화적응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공적 자원으로 결혼이민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지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 제공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모두 포괄하여 공적 자원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고, 나아가 비공식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다양한 대안 모색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공식적 지지를 공적 자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단순한 경험 유무만을 비교해, 참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구체적인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우울이나 불안, 사회적 부적응을 완화하고 문화적응을 돕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연구 등이 병행되어, 결혼이민여성들을 돕는 임상실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공식적 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정신 건강 및 문화적 적응의 특성들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이 결과만으로 공식적 지지가 정신건강 및 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선적 규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상기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여 결혼 이민여성들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식적 지지가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효과적인 지지자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적 자원 확보가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원고접수: 2010. 4. 23 게재확정: 2010. 5. 18)

참고문헌

- 김기현(2008),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서비스기관 이용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희(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도희·신효선(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19집 2호, pp.243-273.
- 김오남(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2집 3호, 47-73쪽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 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5a),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
- _____ (2005b),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양옥경·김연수(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6집, 79-110쪽.
- 윤복남(1997), “캐나다 거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응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연구』, 제3권 1호, 21-69쪽.
- 이경은·박창제(2009),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족과 문화』, 제21권 4호, 119-143쪽.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덕희(2001), “가정폭력경험 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다문화가정아동의 적응,” 위덕대학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개원기념 심포지움 발표문(2007. 11. 1).
- _____ (2010), “보호요인이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1호, 21-43쪽.
- 정일선(2008),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서비스추진체계 효율적 연계방안』,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 정진경(2000), “남북한 간 문화 이해지”,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367-422쪽. 서울: 삼인.
-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1호, 101-136쪽.
- 정진경·최진이·김성민·정진현(2001), 『북한에서 온 내친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북한 문화이해지』, 서울: 우리교육.

Abbott, W. M., Wong, S., Williams, M., Au, M. and Young, W.(1999), "Chinese migrant's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to life in New Zealand", *Transcultural Psychiatry*, 33, pp.13-21.

Alderete, W. Vega, W.A., Kolody, B. and Aguilar-Gaxiola, S.(2000), "Effects of time in the US and Indian ethnicity on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among Mexican origin adul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8, pp.90-100.

Berry, J. W.(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 dividual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232-253. NewburyPark, CA:Sage.

_____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Berry, J. W., Kim, U. M. and Mok, D.(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pp.491-511.

Camilleri, C. and Malewska-Peyre, H.(1997), "Socialization and identity strategies", In J. W. Berry. P. R. Dasen and T. S. Saraswath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 pp.41-67. Boston: Allyn & Bacon.

Holahan, C. J. and Moos, R. H.(1981),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pp.365-370.

Kaplan, B. H., Casessel, J. C. and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pp.47-58.

- Kaplan, Howard B., Robbins, C. and Steven S. Martin.(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Self-
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pp.230-44.
- Lin, K. M., Tazuma, L. and Masuda, M.(1979).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 refugees: health and mental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pp.955-961.
- Reinke, D. C.(1997). *A human ecological systems perspective on
family violence in canada's north*, Unpublished of master of
science. University of Alberta, Alberta.
- Schaefer, C. and Lazarus, R. S.(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pp.1-39.

〈Abstract〉

Effects of Public Support on Mental Health and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in Married Immigrant Women

Duk-hee Jang & Keung-Eun Lee

The present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ublic support on the mental health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an and their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The study subjects were 624 women who were immigrated to Korea, married and have stayed in Gyungbook provi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from Vietnam, Half of them earned less than 1,000,000 won per month, and they had kids more than one. Secondly, most of the public support that they had previously experienced were Korean language teaching service and visiting home service. Thirdly, when they received more consulting service, they showed less degree of depressive mood. When they got more Korean language teaching service and visiting home service, less degree of emotional instability was shown. Moreover, more chances to be involved socially they had, less degree of adaptation problem to Korean society was found. Fourthly, when they were involved more in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service, social network

program, and leisure activities, they showed high degree of accultur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public support could decrease their anxiety, depression, and maladaptation to Korean culture in married immigrant women. Therefore, more diverse public supports for them should be invented and developed.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Mental health, depression, Public support,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